

초상화로 뒤집는 조선시대 역사 상식

'박문수 암행어사 아니었다?' ... 배한철 저서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

암행어사 하면 단연 박문수인데 그는 암행어사를 한적이 없고 황희 정승이 마냥 청렴하지만은 않았으며, 천원권 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의 초상은 '상상화'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책이 출간됐다. '초상화'를 근거로 'CS'(뉴욕 과학수사대)같은 추적을 한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다.

책속으로 들어가 일단 박문수가 암행어사를 한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박문수는 설화에는 달리 실제 역사속에서는 암행어사로 파견된 적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박문수는 1727년 9월 25일부터 이듬해 4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영남별감어사'로 활동했다. 별감어사는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살피거나 양역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감독과 순찰의 의무를 띠고 파견된 관리로 암행어사와는 많이 다르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국왕의 명으로 몰래 지방관을 감찰하고 그들의 비리를 적절히 탄압하는 관원이었다. 그의 암호명은 '암행어사 출우요'로 이 한마디면 지방 수령들이 흔비백산 도망가는 장면은 21세기 현대인의 눈에도 선하게 각인되었다.

그런데 박문수는 어떻게 암행어사 아 이룬이 됐을까. 33세때 과거에 급제해 사관으로 벼슬 생활을 시작한 박문수는 뜻밖에도 당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호조판서로 재임하면서 군포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균역법' 제정을 주도했다. 사납 단위로 부과하던 군포를 가구 단위로 전환해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부족한 재원을 어전세, 염세, 선계 등을 신설해 채우는 획기적 제도다.

또 별감어사로 재임하면서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환곡을 풀어 흉년으로 어려

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다. 지방의 현감과 관공 부사 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등을 평가하고 술을 좋아하고 지식이 밝지 못하며 간사한 지방관들을 파직할 것 명망있는 인물을 지방관으로 임명할 것등을 조정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받았고 함경도에서는 그를 위한 송덕비까지 세워졌다. 그의 생애를 통해 백성을 구휼하는 행적이 여럿이 확인되지만 당대에 암행어사의 대표격으로 추앙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흉년에 들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염원이 그를 영원한 암행어사로 각인시키기 시작했고 일제시대 '박문수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됐다."

그의 영정은 영조 2년인 1728년에 제작돼 증가에서 보관해왔으면 보물 제1189-1호로 지정됐다. 단아한 얼굴이며 수염이 많지 않다.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아니었던 만큼 황희도 청백리는 아니었다. 황 희는 56년간의 관직생활 중 재상으로 24년을 있었고 그중에 영의정만 18년을 했다.

"명재상이기는 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으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청렴하기는커녕 부패했다." 놀라운 일도 있다. 공직자 감찰기구인 사헌부의 수장으로 재직 때엔 승려에게서 황금을 버물로 받아 '황금 대사헌'으로 불렸고 심지어 조선 개국공신인면서 2차 왕자의 난 때 참형을 당한 박포의 부인과 간통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청백리 표상이 됐을까.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됐는지 알 수 없지만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청빈한 공직자가 매우 드물었다. 민초들은 조선시대 공직자의 대표주자였던 황희 정승에 정

백리 이미지를 심어 부정할 공직자들이 본받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황희 초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경북 상주 옥동서원 영정을 조선 후기에 모사 한 것으로 매우 강한 인상을 풍기는 이 초상화의 원본은 황희가 82세(1424년)때 그려졌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개된 초상화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던 초상화를 총망라하며 위인들의 실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최고 박색 박씨부인 남평은 의외로 '꽃미남'이었고 칠종은 '사시'였다. 또한 선조대에선 인조대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무능력을 보여준 장만의 경우 안대를 찬 '배꾸' 모습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복상'(보정)이 없다. 천연두 자국이나 사마귀도 그대로 그렸다. '일호불사 편시타인(一毫不可 僣非他人, 티끌 한 올이라도 같지 않다면 곧 다른 사람이다)'이라는 초상들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이황뿐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 김유신 장보고 등 많은 유명 위인들의 초상화가 전해지지 않는다. 사료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왕조도 마찬가지다. 조선왕조 초상화의 경우 1954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국악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 불타버리고 말았다.

고려왕조의 초상도 왕릉에서 청동상이 발굴된 태조 왕건, 대동강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에 그려진 인물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15대 미천왕 정도가 전부다. 이러한 위인들의 초상이 어째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문헌과 후손들의 초상을 통해 생김새를 추론하는 과정은 인상 깊다.

초상화 걸작은 공재 윤두서



배한철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

(1688~1715)의 자화상이다. 마음을 깨물 어보는 듯 한 강렬한 눈매, 딱 다문 입술,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 꿈뜬거리는 수염은 하이퍼리얼리즘을 뛰어넘는다. 국보 제240호가 된 이 초상은 우리 회화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걸작으로 꼽힌다.

초상화의 현실도 알려준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총 75점, 특별히 높은 가치가 인정돼 국보 목록에 올라온 초상화가 있지만 '윤두서 자화상'을 포함해 5점에 불과하다. 윤두서와 함께 국보 제 239호에 오른 송시열 초상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5점의 송시열 초상화중 제일 수작으로 꼽힌다. 책의 표지를 장식한 건 작자미상의 '이체 초상'이다.

저자는 "일반인들의 초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새롭게 밝혀낸 역사적 인물들의 모습을 표준영역 제작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게 책을 펴낸 이유"라고 밝혔다. 388쪽, 생각정거장1만8000원 /뉴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국립현대미술관 공동

고요한 밤 정취담은 '밤을 위한 세레나데' 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갤러리에 밤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밤을 위한 세레나데>전이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갤러리 R과 E에서 열린다.

고요한 밤의 서정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서른여덟 점의 '밤'을 선보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기획자 김미라씨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명을 빌려 "국립현대미술관이 엄선한 미술은 웅장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녹턴 Op.27'로 수놓은 한밤 연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연상하기 쉬운 색선이지만, 침묵과 관조가 많았다. 사진작가 한성필은 <Light of Magritte>를 통해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시리즈를 모사했다. 집과 나무·가마등은 어둠 속에, 하늘과 구름은 빛 속에 있는 풍경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현실과 가상 낮과 밤이 공존하는 현실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커튼을 배치시킴으로써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한다.

두 번째 색선인 '도시의 밤'은 '빛의 도시'를 연상시킨다. 사진작가 한조영의 <검은 풍경>은 어둠이 빛을 밝히는 도심 야경을 보여준다. 캔버스에 채색한 도시에 스티커로 수많은 불빛을 표현했다. 공황장애를 체험한 작가는 이 불빛들로부터 존재에 관한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세 번째 색선은 '별과 달'이다. 사진작가 오상택은 <PRS-002 Band>를 통해 검은 구름이 드리워진 하늘 아래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역동적인 몸짓을 드러낸다. 현대인이 꿈꾸는 이상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과장된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작품에 자신이 출연하거나 주변인들을 등장시켜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도 독특하다.

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실험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김기태, 위성운, 이재삼, 공성훈, 한성필, 이원철, 김지희, 김대열, 김성수, 정세라, 정보영, 정연두, 한조영, 권기동, 최성훈, 김승연, 김봉환, 김효준, 안세권, 김종업, 송민철, 이기재, 이경훈, 박상희, 최성훈, 김해원, 김도균, 안윤모, 임택, 원성일, 홍주희, 김선두, 이종근, 오상택, 윤대라, 김도균, 구분창, 최기창이 참여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과 추석 연휴인 9월 14~15일은 휴관한다.

<밤을 위한 세레나데>전과 연계한 음악회도 10월1~3일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63)270-7835.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전북국악원 초청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은 한가위를 맞아 우리기락을 만나볼 수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대표 공연인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를 3일 오후 3시에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북도립국악원은 1984년부터 30년 동안 전라북도 한국음악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단으로 전주대사습놀이 등 국내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60여명의 관현악 단원들이 펼치는 무대로, 국악 관현악 '꽃잎'을 시작으로 이 지역 출신인 동남풍 조상훈 대표가 이끄는 '신모듬'과 이 시대 최고의 명창 김일구의 판소리 적벽가, 그리고 귀에 익은 국악가요 협연을 통해 더욱 멋스럽고 웅장한 국악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인터넷 예매와 현장예매로 운영된다.

현장예매는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인 2매씩 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3일 군산우쿨렐레동아리의 '우쿨렐레 공연'과, 10일 젊은 미술사 김승준의 '김말미야'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 수요일에는 성악가들의 재미있는 음악이야기 '함모양모 콘서트'로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한성필 작가 Light of Magritte



경희 작가 time traveling

교동아트스튜디오, 'Group 플라스틱' 초대전

면사, 동판, 모시, 등 다양한 재료로 형상화 된 작품들과 함께

면사, 동판, 모시, 스텐와이어, 화산석, 조향토, 흑유, 한지, 페브릭 실, 백자조형토, 순은, 산호, 진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로 형상화 된 조형작품들이 미술관을 메운다.

'Group 플라스틱' 초대전이 오는 4일까지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린다.

강정이, 김귀복, 김선에, 김이재, 김희정, 송수미, 손정문, 신수정, 유경희, 윤성식, 이병로, 이혜련, 장영애, 조수진, 주인영, 한선주 등 이번 전시에 참여한 중견작가들은 이질적인 재료들을 조화롭게 결합, 오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조형물로 구현해

냈다. 그로 인해 전시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모험들이 배어있다.

Group 플라스틱은 같은 듯 서로 다른 작품의 대립과 화합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술적 소통의 시너지를 표현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호기심, 역동적인 창작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토대로 매해마다 참신한 문제를 제시한다. 또 교류를 통해 지역성 및 세계적 보편성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전시의 장을 마련한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2일>

▷쥐띠
46년생: 뒷사람에 관련된 일이 생기는 운이다.
60년생: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수가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
84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

▷소띠
49년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주의하라.
7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5년생: 작은 일에도 동요가 일어나니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부드럽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원행은 삼가라. 좋은 일이 없다.
74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나중에는 좋으니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86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토끼띠
51년생: 타인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지 마라.
63년생: 심신에 신경써야 하는 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금물이다.
75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여행을 버리는 일은 금물.
87년생: 분주한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라.

▷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도 방심은 금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얻는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적대감이 팽배한 운.
88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한 상황

▷뱀띠
53년생: 중요한 일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
65년생: 조금씩 생각해두고 금할수록 돌이키라.
77년생: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곤란함이 생긴다.
89년생: 결국 후자 이겨나기야 하는 운.

▷말띠
54년생: 외적으로는 잘 흘러가나 내적으로는 막힘이 많으니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손재주도 따르니 미리 배우는 것도 방법이다.
7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외부로부터 방해받게 되니 때를 기다려라.
90년생: 열심히 해도 당장은 일이주지는 이 없다.

▷양띠
55년생: 먼저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7년생: 타인이 아닌 자의가 움직일 때 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79년생: 마음이 비좁아질 때, 그림자속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91년생: 여자는 이성을 주의하라. 이성으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생긴다.

▷원숭이띠
55년생: 금전거래는 삼가야 한다.
69년생: 뒷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운.
80년생: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탈이 없다.
92년생: 독단독행은 삼가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닭띠
57년생: 생각이 못된 뜻밖의 귀인이 나타난다.
69년생: 일을 할 때 시차 타이밍이 중요하다.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지금은 많은 생각 말고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개띠
48년생: 원행은 삼가라. 금전만 손해볼 뿐 좋잖지 않다.
60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큰 소득은 없으니 감안하고 움직여라.
7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2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들에 대해 실수가 발생하는 운

▷돼지띠
47년생: 중간 중간 일에 막힘이 있는 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겉으로는 대치상황이나 내면은 같은 마음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83년생: 허니를 던지면 두 개로 돌아오니 언행에 주의하라.